

점수가 올랐어요!

2008년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및 수준 측정 결과

방통위가 지난 3월초 우리나라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 한 개인정보보호지수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지수는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과 정부의 정책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 수립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2008년 하반기에 실시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초로 공개한 자료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지수는 64.3점으로 2007년 결과인 52.2점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역 세부지표와 개인영역 세부지표로 구성된 이번 조사결과를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

'64.3점', 2008년 개인정보보호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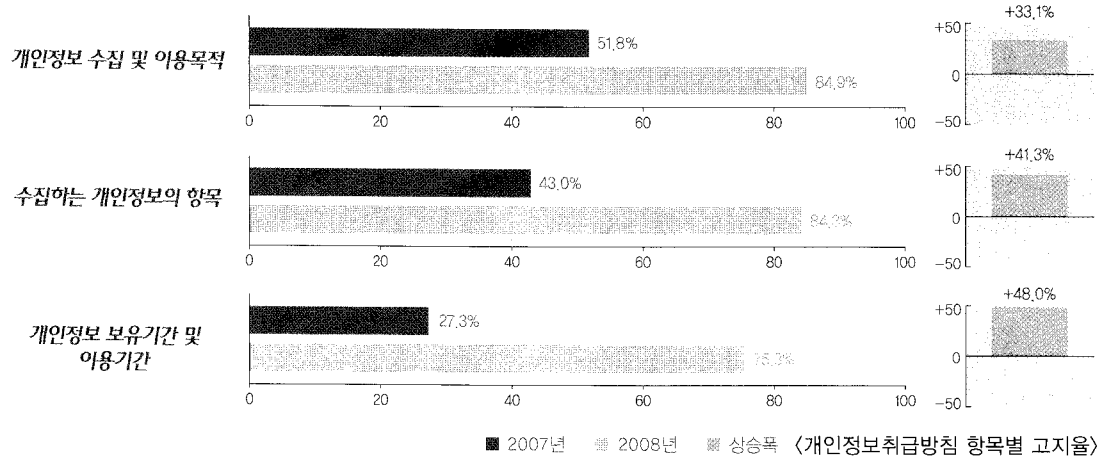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지수는 기업영역 세부지표와 개인영역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 2008년 기업영역의 지수는 61.8점, 개인 영역은 66.8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수치는 2007년 대비 기업영역에서 15.9점, 개인 영역에서 8.3점이 각각 상승한 것이다.

영역	대분류	중분류	지표	2007	2008	등락폭
기업	관리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	53.3	81.5	+28.2
		개인정보보호조직·교육	• 개인정보보호조직 구성률	49.4	40.8	-8.6
			•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율	36.1	83.1	+47.0
	기술·물리	보안기술	• 암호화 통신율	53.9	62.5	+8.6
			• 암호화 저장률	59.9	59.9	-
		물리적 보안	• 물리적 접근통제율	30.6	42.5	+11.9
기업영역 점수				45.9	61.8	+15.9
개인	관리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율	31.3	31.3	-
		ID/PW관리율	• PC 및 웹사이트 비밀번호 관리율	31.1	50.2	+19.1
			• 공인인증서 사용률	57.2	71.9	+14.7
	기술·물리	보안프로그램 이용률	•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 사용률	82.2	94.3	+12.1
			• 인터넷 보안 설정률	71.3	81.2	+9.9
			• OS업데이트율	84.4	86.5	+2.1
개인영역 점수				58.5	66.8	+8.3
개인정보보호지수				52.2	64.3	12.1

산출 결과

‘+28.2%’,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은 53.3%에서 81.5%로 2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세부항목별 고지율의 평균 상승률은 40.8%로 집계됐다. 특히, 옥션, GS칼텍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사업자들의 고지의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됐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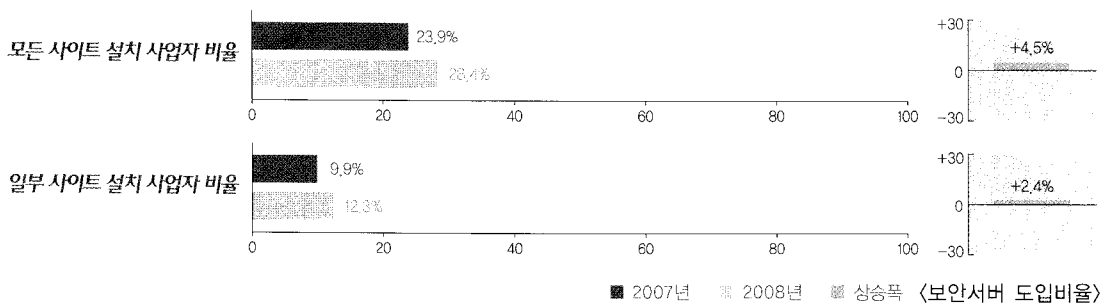
※ 2007년은 3개 항목 중 한개만 고지해도 취급방침 고지업체로 간주했으나, 2008년은 3개 항목 평균을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율'로 간주함

‘+47.0%’, 개인정보보호교육

이번에 발표된 지수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비율. 무려 47.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방통위와 행안부 그리고 KISA가 실시한 연간 교육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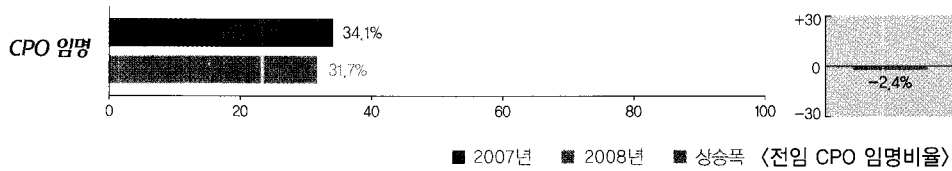
‘+8.6%’, 암호화 통신율

지난 2006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요 웹 사이트 대상 보안서버 구축 사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 통신율이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구축 사이트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안서버의 보급률은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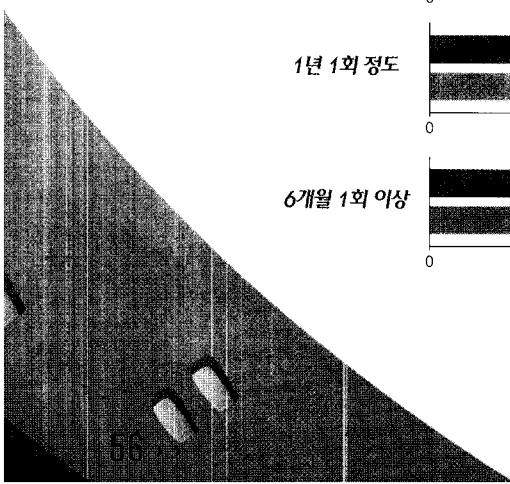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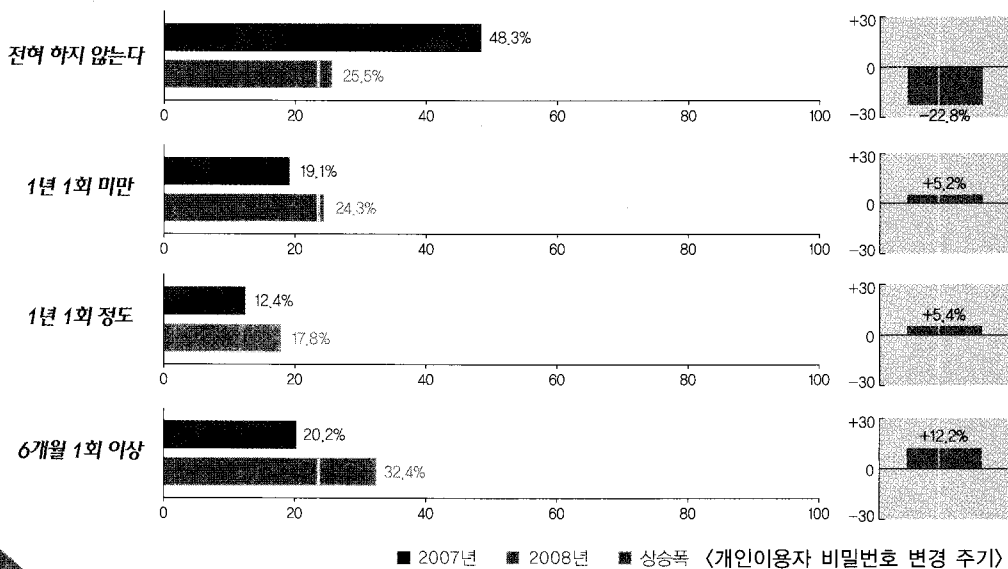
‘-8.6%’, 개인정보보호조직 구성률

물론 모든 지표에서 상승 곡선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2007년과 비교해 유일하게 개인정보보호조직 구성률은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CEO와 CIO를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한 CPO(Chief Privacy Officer) 임명비율도 34.1%에서 31.7%로 2.4% 하락했다. CPO 지정은 법적 의무조항이지만, CPO 지정을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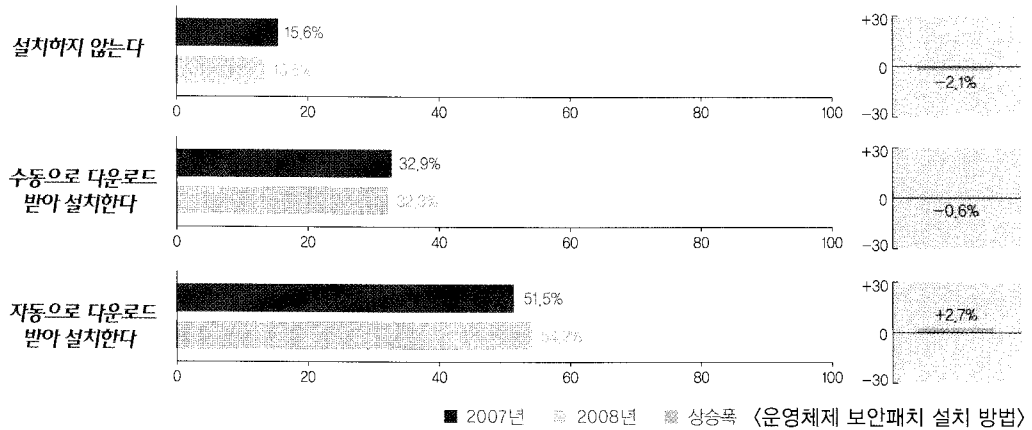
‘+19.1%’, 비밀번호 관리율

한편, 개인 영역 중 PC 및 웹 사이트 비밀번호 관리율은 50.2%로 2007년 대비 19.1%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승률은 주요 포털 및 게임 사이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 등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밀번호를 전혀 변경하지 않는 사용자가 전년대비 22.8% 감소한 것도 큰 변화.



▶ 2.1% OS 업데이트율

윈도즈 XP 제품 이후, OS의 보안패치 자동설치 기능이 기본 값으로 설정됨에 따라 OS 보안패치 설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터넷 보안 설정률도 9.9%로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용자들의 보안의식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0.1%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율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율은 2007년 31.275%에서 2008년 31.349%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취급방침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8.3% 감소하는 등 개선된 측면이 있었지만 이용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과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라는 규제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

